

# Source Han Sans Test

Tester

2014년 8월 14일

## 요약

폰트 Source Han Sans Regular, Source Han Sans Bold를 테스트하려 합니다.

## 1 ASCII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purus elit, vestibulum ut, placerat ac, adipiscing vitae, felis. Curabitur dictum gravida mauris. Nam arcu libero, nonummy eget, consectetur id, vulputate a, magna. Donec vehicula augue eu neque. Pellentesque habitant morbi tristique senectus et netus et malesuada fames ac turpis egestas. Mauris ut leo. Cras viverra metus rhoncus sem. Nulla et lectus vestibulum urna fringilla ultrices. Phasellus eu tellus sit amet tortor gravida placerat. Integer sapien est, iaculis in, pretium quis, viverra ac, nunc. Praesent eget sem vel leo ultrices bibendum. Aenean faucibus. Morbi dolor nulla, malesuada eu, pulvinar at, mollis ac, nulla. Curabitur auctor semper nulla. Donec varius orci eget risus. Duis nibh mi, congue eu, accumsan eleifend, sagittis quis, diam. Duis eget orci sit amet orci dignissim rutrum.

Nam dui ligula, fringilla a, euismod sodales, sollicitudin vel, wisi. Morbi auctor lorem non justo. Nam lacus libero, pretium at, lobortis vitae, ultricies et, tellus. Donec aliquet, tortor sed accumsan bibendum, erat ligula aliquet magna, vitae ornare odio metus a mi. Morbi ac orci et nisl hendrerit mollis. Suspendisse ut massa. Cras nec ante. Pellentesque a nulla. Cum sociis natoque penatibus et magnis dis parturient montes, nascetur ridiculus mus. Aliquam tincidunt urna. Nulla ullamcorper vestibulum turpis. Pellentesque cursus luctus mauris.

Nulla malesuada porttitor diam. Donec felis erat, congue non, volutpat at, tincidunt tristique, libero. Vivamus viverra fermentum felis. Donec nonummy pellentesque ante. Phasellus adipiscing semper elit. Proin fermentum massa ac quam. Sed diam turpis, molestie vitae, placerat a, molestie nec, leo. Maecenas lacinia. Nam ipsum ligula, eleifend at, accumsan nec, suscipit a, ipsum. Morbi blandit ligula feugiat magna. Nunc eleifend consequat lorem. Sed lacinia nulla vitae enim. Pellentesque tincidunt purus vel magna. Integer non enim. Praesent euismod nunc eu purus. Donec bibendum quam in tellus. Nullam cursus pulvinar lectus. Donec et mi. Nam vulputate metus eu enim. Vestibulum pellentesque felis eu massa.

Quisque ullamcorper placerat ipsum. Cras nibh. Morbi vel justo vitae lacus tincidunt ultrices.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In hac habitasse platea dictumst. Integer tempus convallis augue. Etiam facilisis. Nunc elementum fermentum wisi. Aenean placerat. Ut imperdiet, enim sed gravida sollicitudin, felis odio placerat quam, ac pulvinar elit purus eget enim. Nunc vitae tortor. Proin tempus nibh sit amet nisl. Vivamus quis tortor vitae risus porta vehicula.

## 2 한글 음절문자 영역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 만좌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죽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산중의 내 집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어 매양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항상 차기와 포고의 소리를 듣게 되어 드디어 귀에 젖어 버렸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보니, 깊은 소나무가 통소 소리를 내는 것은 듣는 이가 청아한 탓이요,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분노한 탓이요, 못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교만한 탓이요, 천둥과 우레가 급한 것은 듣는 이가 놀란 탓이요, 찻물이 끓는 듯이 문무가 겸한 것은 듣는 이가 취미로운 탓이요, 거문고가 궁수에 맞는 것은 듣는 이가 슬픈 탓이요, 종이창에 바람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의심나는 탓이니, 모두 바르게 듣지 못하고 특히 흥중에 먹은 뜻을 가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소리를 만든 것이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아홉 번 건넜다. 강은 새외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와 조하·황화·진천 등의 모든 물과 합쳐 밀운성 밑을 거쳐 백하가 되었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하류였다.

내가 막 요동 땅에 들어왔을 때는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뜨거운 별 밑을 가노라니 홀연 큰 강이 앞에 당하였다. 또한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 끝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대개 천리 밖에서 폭우가 온 것이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것은 하늘에 목도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 돌아 탕탕히 흐르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은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는 것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었다. 또한 어느 거를에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위험함이 이와 같으니, 물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모두 말하기를, “요동 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물 소리가 크게 울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하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에 건너 보지 않은 때문이니,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만 보면서 무서움을 느껴 도리어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판인데, 어찌 또 들리는 소리가 있겠는가.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 위험한 것을 볼 수 없으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있어 바야흐로 귀로 무서움을 느끼니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이목이 누가 되지 않고, 이목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을 더욱 밝혀서 병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내 마부가 발을 말굽을 밟혀서 뒷차에 실리었으므로, 나는 드디어 혼자 고삐를 늦추어 강에 띄우고, 무릎을 구부려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번 떨어지면 강이나 물로 땅을 삼고 물로 옷을 삼으며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을 삼으니, 이제야 내 마음은 한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터이므로 내 귓속에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무릇 아홉 번 건너는데도 걱정이 없어 의자 위에서 좌와하고 기거하는 것 같았다.

옛날 우는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히 위험했으나 사생의 판단이 먼저 마음 속에 밝고 보니,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죽히 관계될 바 없었다. 소리와 빛은 외물이니 외물이 항상 이목에 누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 같거든,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지나는 데 그 험하고 위태로운 것이 강물보다 심하고,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이 되는 것임에라.

나는 산중의 내 집에 돌아와 다시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증험해 보고, 몸 가지는 데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 3 한자 영역

河出兩山間，觸石鬪狼，其驚濤駭浪，憤瀾怒波，哀湍怨瀨，犇衝卷倒，嘶哮號喊，常有摧破長城之勢。戰車萬乘，戰騎萬隊，戰砲萬架，戰鼓萬坐，未足喻其崩塌潰壓之聲。沙上巨石，屹然離立，河堤柳樹，昏冥鴻蒙，如水祇河神爭出驕人，而左右蛟螭試其拏攫也。或曰：「此古戰場，故河鳴然也。」此非為其然也，河聲在聽之如何爾。

余家山中，門前有大溪。每夏月急雨一過，溪水暴漲，常聞車騎砲鼓之聲，遂為耳崇焉。余嘗閉戶而臥，比類而聽之。深松發籟，此聽雅也；裂山崩崖，此聽奮也；羣蛙爭吹，此聽驕也；萬筑迭嚮，此聽怒也；雷霆急雷，此聽驚也；茶沸文武，此聽趣也；琴諧宮羽，此聽哀也；紙窓風鳴，此聽疑也。此皆聽不得其正，特胸中所意設，而耳為之聲焉爾。

今吾夜中，一河九渡河。出塞外，穿長城，會榆河潮河黃花鎮川諸水，經密雲城下，為白河。余昨舟渡白河，乃此下流。

余始入遼，時方盛夏，行熱陽中，而忽有大河當前。亦濤山立，不見涯涘，蓋千里外暴雨也。渡水之際，人皆仰首視天。余意諸人者仰首默禱于天。久乃知渡水者視水回駛洶蕩。身若逆泝，目若沿流，輒致眩轉墮溺。其仰首者，非禱天也，乃避水不見爾。亦奚暇默祈其須臾之命也哉。

其危如此，而不聞河聲。皆曰：「遼野平廣，故水不怒鳴。」此非知河也。遼河未嘗不鳴，特未夜渡爾。晝能視水，故目專於危，方惴惴焉反憂其有目，復安有所聽乎？今吾夜中渡河，目不視危，則危專於聽，而耳方惴惴焉，不勝其憂。

吾乃今知夫道矣！冥心者，耳目不為之累；信耳目者，視聽彌審而彌為之病焉。今吾控夫，足為馬所踐，則載之後車，遂縱鞍浮河，攀膝聚足於鞍上。一墜則河也。以河為地；以河為衣；以河為身；以河為性情。於是心判一墜，吾耳中遂無河聲，凡九渡無虞，如坐臥起居於几席之上。

昔禹渡河，黃龍負舟，至危也。然而死生之辨，先明於心，則龍與蠓蚋，不足大小於前也。聲與色，外物也。外物常為累於耳目，令人失其視聽之正，如此。而況人生涉世，其險且危，有甚於河，而視與聽，輒為之病者乎？

吾且歸吾之山中，復聽前溪而驗之。且以警巧於濟身而自信其聰明者。

### 4 옛한글 영역

世·생宗宗御·영製·쟁訓·훈민민正·정음음

製·쟁·는·글지·술·씨·니御·영製·쟁·는·님금지스신·그리·라訓·훈·은·구루·칠·씨·오민민·은·百·빅姓·성이·오음음·은  
소·리·니訓·훈민민正·정음음·은·百·빅姓·성·구루·치시·논正·정훈소·리·라

國·귀·之·징語·영음음·이

國·귀·은·나·라히라·之·징·는·입·겨지·라語·영·는·말·씨·미·라·나·랏·말·씨·미

異·잉·乎·중·동國·귀·하·야

異·잉·는·다·를·씨·라·乎·중·는·아·모·그·에·하·는·겨·체·쓰·는·字·중 | ·라·中·동國·귀·은·皇·황·帝·명·겨·신·나·라·히·니·우·리·나  
·랏·常·쌍·談·담·애·江·강·南·남·이·라·하·는·니·라·中·동國·귀·에·달·아

與·영·文·문·字·중·로·不·불·相·상·流·류·通·통·홀·씨

與·영·는·이·와·더·와·하·는·겨·체·쓰·는·字·중 | ·라·文·문·은·글·와·리·라·不·불·은·아·니·하·는·쁘·디·라·相·상·은·서·르·하·는  
·쁘·디·라·流·류·通·통·은·홀·러·스·무·출·씨·라·文·문·字·중·와·로·서·르·스·뭇·디·아·니·홀·씨

故·공·로·愚·웅·民·민·이·有·을·所·송·欲·욕·음·언·하·야·도

故·공·는·전·차·라·愚·웅·는·어·릴·씨·라·有·을·는·이·실·씨·라·所·송·는·배·라·欲·욕·은·하·고·저·홀·씨·라·음·언·은·니·를·씨·라  
·이·런·전·차·로·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홀·배·이·셔·도

而·싱·終·중·不·불·得·득·伸·신·其·핑·情·정·者·장 | 多·당·矣·잉·라

而(而)상(上)·눈(目)·겨(居)지(止)·라(終)중(中)은(은)·츠(次)미(米)·라(得)득(得)·은(은)시(時)·를(를)·씨(씨)·라(伸)신(伸)·은(은)·펼( 펼)·씨(씨)·라(其)·평(平)·는(는)·제(제)·라(情)·정(正)·은(은)·쁘(쁘)디(迪)·라(者)·장(○)장(張)  
·는(는)·노(老)미(米)·라(多)당(堂)·는(는)·할(할)·씨(씨)·라(矣)·윙(嬴)·는(는)·말(말)·뫼(沒)·눈(目)·겨(居)지(止)·라(末)·츠(次)·내(內)·제(制)·쁘(쁘)·들(들)·시(時)·러(러)·퍼(퍼)·디(迪)·뫼(沒)·홍(紅)·노(老)·미(米)·하(下)·니(尼)·라(拉)

予(予)영(英) | 爲(爲)·윙(嬴)·此(此)·총(憫)·민(民)·然(然)·선(善)·후(後)·야(亞)

予(予)·영(英)·는(는)·내(內)·후(後)·습(習)·시(時)·는(는)·쁘(쁘)·디(迪)·시(時)·니(尼)·라(此)·총(總)·는(는)·이(以)·라(憫)·민(民)·然(然)·선(善)·은(은)·어(어)·엇(越)·비(比)·너(너)·기(基)·실(實)·씨(씨)·라(內)·이(以)·를(爲)·윙(嬴)·후(後)·야(亞)·어(어)·엇(越)·비(比)·너(너)·거(거)

新(新)신(新)·제(制)·정(正)·二(二)·십(十)·십(十)·八(八)·뫼(號)·字(字)·쥬(訖)·후(後)·노(老)·니(尼)

新(新)·신(新)·은(은)·새(新)·라(制)·정(正)·는(는)·뫼(號)·그(其)·루(魯)·실(實)·씨(씨)·라(二)·십(十)·십(十)·八(八)·뫼(號)·은(은)·스(斯)·믈(沒)·여(여)·들(들)·비(比)·라(新)·로(老)·스(斯)·믈(沒)·여(여)·뫼(號)·字(字)·쥬(訖)·를(號)·뫼(號)·그(其)·노(老)·니(尼)

欲(欲)·욕(欲)·使(使)·승(승)·人(人)·신(新)·人(人)·신(新)·우(右)·로(魯)·易(易)·잉(嬰)·쥬(訖)·후(後)·야(亞)·便(便)·於(於)·일(日)·씸(用)·용(用)·우(右)·어(耳)·싱(新)·니(尼)·라(拉)

使(使)·승(승)·는(는)·히(以)·여(여)·후(後)·논(論)·마(馬)·리(里)·라(人)·신(新)·은(은)·사(沙)·루(魯)·미(米)·라(易)·잉(嬰)·는(는)·쉬(洗)·불(拂)·씨(씨)·라(濯)·쥬(訖)·은(은)·나(納)·길(吉)·씨(씨)·라(便)·뫼(便)·은(은)·뫼(便)·안(安)·한(汗)·홀(忽)·씨(씨)·라(於)·형(形)·는(는)·아(阿)·모(磨)·그(其)·에(何)·후(後)·논(論)·겨(居)·체(體)·쓰(書)·는(는)·字(字)·쥬(訖) | ·라(日)·씸(用)·은(은)·나(納)·리(里)·라(用)·용(用)·은(은)·뫼(沒)·씨(씨)·라(耳)·싱(新)·는(는)·쥬(訖)·루(魯)·미(米)·라(後)·논(論)·쁘(쁘)·디(迪)·라(沙)·름(魯)·마(馬)·다(大)·히(以)·여(여)·수(水)·비(比)·니(尼)·거(居)·날(日)·로(魯)·부(夫)·메(便)·뫼(便)·안(安)·한(汗)·크(可)·후(後)·고(故)·저(著)·홍(紅)·쥬(訖)·루(魯)·미(米)·니(尼)·라(拉)

## 5 CJK 한자 locl 테스트

骨(骨)·曜(曜)·道(道)·視(視)·啓(啓)·韓(韓)

骨(骨)·曜(曜)·道(道)·視(視)·啓(啓)·日(日)

骨(骨)·曜(曜)·道(道)·視(視)·啓(啓)·中(中)·繁(繁)

骨(骨)·曜(曜)·道(道)·視(視)·啓(啓)·中(中)·簡(簡)